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양수*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어디든 이동하기 쉽다. 조금만 걸으면 sky train 역도 있어서 더 먼거리로 이동하기 쉽다. 학교는 전체적으로 크고 시설 또한 굉장히 좋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class 또한 깨끗하고 좋다.
수업	첫날에 Listening test를 통해 반을 결정한다. 반은 5개로 나뉘며 반마다 1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갔을 때는 한국학생들은 우리학교밖에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 학생들이었다. 타이완이랑 중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다. 수업방법은 반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반은 다른 활동은 별로 없고 프린트만 가지고 수업했다. 둘씩 혹은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게임같은 것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다. 액티비티 활동을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보고서도 만들기도 했다. 내 클래스의 선생님은 Lon이었고 혼자 남자분이셨다. 나이가 있으셨고, 너무 착하신 분이였다. 숙제는 거의 없었고, 매일 일기를 쓰고 문법이 틀린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맞게 고쳐주었다. 수업 준비는 딱히 할게 없었다.
Activity	많은 Activity 활동이 있었는데 일단 수업 외에 학교 안에서 진행된 활동은 모든 클래스의 애들이 모여서 다른 조를 이루어 같이 게임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 조의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게임도 열심히 했거니와 그 친구들과 더 친해졌던 것 같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여서 좋았다고

	<p>생각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activity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Discover Vancouver 활동이었다. 밴쿠버에 유명한 명소들을 하루안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눠준 프린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다니면서 적었는데, 제대로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여 건물의 외형정도만 보고 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외에 아쿠아리움, 박물관, 카약킹, 휘슬러 가는 것이 있었다. 카약킹을 할 때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너무 지쳤었다. 나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꼭 착용하여 카약킹을 탔었다. 옷이 젖을까 봐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나는 바지가 다 젖어버렸다.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젖지 않았는데 노를 잘 못 저었었던 것 같다. 굉장히 많이 젖을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별로 젖지 않았다. 다음은 whistler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날씨가 너무 추울 것이라고 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밴쿠버 날씨보다 살짝 더 추운 정도 였다. whistler에서 곤돌라 타는 것이 너무 좋았다. 조용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등산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약간 돌이 많은 곳들을 걷는 정도여서 힘들지 않았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은 간식 같은 것 빼고는 들지 않았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날씨는 쌀쌀한 편이지만 햇빛이 쬐서 선크림을 꼭 발라야하며 낮에는 더울 때도 있다. 그래서 늘 겹옷을 챙기고 다녔다. 나는 추운걸 싫어해서 반팔을 한번도 입지 않을 정도의 날씨였다. 다른 친구들은 반팔도 충분히 입고 다녔다. 기모 후드 집업을 자주 애용했었다.</p>
안전	<p>캐나다의 안전한 곳이지만 9시 이후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최대한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였었는데, 나는 저녁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무섭긴 하지만 굉장히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밤에 친구랑 공원도 산책하고 늦게 들어가는 편이 많았다.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p>
숙소	<p>홈스테이 하는 곳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한 버스만 타면 돼서 굉장히 거리 같은 것을 만족했다. 나는 복층건물에 2층만 사용하였고 1층에는 아들이 자고 2층에는 나와 host mom과 다른 룸메가 살았다. 룸메는 내가 캐나다에 도착한 주에 가서 너무 아쉬웠다. 처음엔 룸메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있는게 더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host mom과 셋이</p>

	<p>서 놀러가기도 쉬웠다. 홈스테이 하는 것에 두려움이 컸는데 나의 host mom은 굉장히 나에게 관심이 많았고, 늘 집에 오면 어떤 것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았다. 매일 아침을 거르지 않고 챙겨주셨고, 날 위해 라면도 끓여주시고 밥도 해주셨다. 규칙 같은 것은 지키기 쉬웠으며 같이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깨끗이 쓰려고 노력했으며 내방은 거의 들어오지 않으셔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즐거웠고 집에서 기르던 brian을 자주 생각한다.</p>
<p>식사</p>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학교식당에는 tim hortons라는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서 가끔 커피를 마셨고 다른 구내식당은 이용하지 않았다. 홈스테이에서 주신 밥은 아침밥은 늘 다양하였으나 점심은 항상 샌드위치여서 먹기 힘들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남겼던 것 같다. 저녁을 자주 먹진 않았지만 먹었을 때에 짜지 않고 적당한 간에 밥이나 고기같은 것을 주로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다. 외부식당을 이용한 이유는 친구들과 자주 밖에서 놀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식당을 자주 이용하였다.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던 맛집은 거의 다 맛이 없었고, 그 중에 초밥집이 제일 맛있어서 거의 스시만 먹었던 것 같다. 그리고 tim hortons 의 ice capp이 너무 맛있었고, 커피가루를 사지 못했던게 너무 후회가 된다.</p>
<p>교통</p>	<p>나는 학교와 집이 버스 하나만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버스 타고 15분이 안 되서 도착을 하여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밴쿠버의 교통 카드의 규칙이 어려워져 잘못타버려서 버스를 타러 갔다가 버스 카드가 작동이 되지 않아 officer한테 잡혔었다. 너무 무서웠고, 놀랐으며 그 땐 놀라지 말고 train역에서 제일 적은 돈으로 충전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음식	320,000	외식, 음료수
쇼핑 & 기념품	600,000	향수,화장품,기념품
입장료	80,000	페리, 입장료
합계	1,0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밴쿠버의 날씨가 생각보다 더 쌀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기모 후드를 가져오면서 입을 날은 있을까하고 생각했었지만, 바로 오자마자 입을 정도로 한국여름날씨와 상반되게 바람이 부는정도로 쌀쌀했다. 샌들을 가져왔지만 카약킹 빼고는 거의 신지 않았었고, 반바지를 입을 때도 스타킹을 신을 정도로 날씨가 추웠다. 꼭 겂옷을 챙겨와야할 것 같다. 겂옷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 홈스테이 패밀리가 빌려주었거나, 거기서 새로 사서 입기도 했다. 그러나 햇빛은 강해서 선크림은 꼭 바르고 다녔다. 원래 밴쿠버의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오고 날씨가 갑자기 변했다고 했다.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홈스테이 부모님께 가기전에 메일을 보내면서 규칙 같은 것을 물어보았는데 먼저 연락한 것을 굉장히 좋아 해주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가기 전에 홈스테이 부모님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갔었다. 처음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민망할 수도 있을 상황에서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다. 옆에 다른 친구들을 보면 한국과자와 같은 음식을 사가지고 갔었는데 채식주의자여서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했다. 그럴 수도 있으니 음식보다는 작은 선물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밴쿠버에 가기전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단어도 좀 외워보고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책도 가져갔었다. 그런데 책 볼 시간은 없었고 짐만 됐다.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크지 않았고, 더 회화 연습을 하고 간다면 훨씬 더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짐을 쌀 때는 꼭 여유공간을 두고 출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념품이나 거기서 사 옷들이 생각보다 부피가 컸고, 입국할 때는 손에 짐 가방 하나 정도를 가지고 올 정도 였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가기 전까지 별 생각 없이 있었고, 밴쿠버에 유명한 곳도 찾아보지 않았을 정도로 가는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공항에 가고 같이 갈 친구들 만나고 지내보니 너무 3주가 짧게만 느껴졌다. 밴쿠버가 생각보다 넓지 않아서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시간을 함께하니 정말 즐거웠다. 지금까지 늘 영어에 자신이 없었고, 홈스테이에 살면서 밥이나 잘 얻어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밴쿠버의 나의 홈스테이 집은 너무 친절하였고 내가 잘 영어를 잘 못했어도 다 알아듣고 대화하는데 많이 힘들지도 않았다. 영어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공부방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었다. 한국의 영어는 읽기 중심의 영어지만 실제 사용하는 회화에서는 내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단어만 가지고는 말을 하기 힘들었다. 실제로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한 발음을 기억하여 대화하곤 했었다. 실제 회화에선 문법보다는 단어 같은 경우만 많이 알아도 쉽게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같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니 너무 즐거웠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로 갔던 것이 정말 즐거웠던 것 같다. 짧은 3주 동안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는 말하기 쉽지 않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느껴지던 연수였다. 외국인들을 만나도 전보다 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각자 다 영어권 나라에 사람이 아니 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영어로 말했고, 영어의 중요성을 더 느꼈던 바이다. 토익공부는 취업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일이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루 동안 지냈던 일들을 영어로 기록하면서 회화 연습에도 충실히 하고 싶다. 또한 밴쿠버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영어를 항상 사용하고 더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with homestay mom and brian



We have a graduation ceremony with Lon's class



We went to museum in vancouver. My classmate formed a group.



All class went to whistler for activity. we climbed mountain. very funny.



We climbed the grouse mountain for 2 hours.



We went to the english bay with class 5 friend and frog.



We went to the victoria island with paul. Paul is to guide us.